



우리의
家章

青松沈氏宗報

發行人：沈明求
編輯人：沈載烈(輔)
서울市 中區 五壯洞 14-10
電話：(02)2267-7857
(02)2263-7897
FAX：(02)2269-7755

非賣品 1996.1.3 등록번호 서울라-549호

홈페이지 | www.cheongsongsim.or.kr

十世祖 青原府院君 贈諡 忠壯 沈公 諱 岱 神道碑銘

휘 대



▶ 충장공 휘 대 묘소 용인시 남사면 완장리



▶ 사적비

사장성인(壯士張姓人)을 분여(分與)받아 오다가 모병수천(募兵數千)하여 연천징파(漣川澄波) 나루에서 적을 만나 격파하였으나 철원잔적(鐵原殘賊)이 배후를 습격하므로 삭녕(朔寧)에 이둔(移屯)하여 의산방어(依山防禦)하며 모병을 증강하고 관하수령 윤경원(尹敬元) 강수남(姜壽男) 양지(梁誌) 삼의사(三義士)를 종사관으로 계청(啓請)하는 동시 강화의병장(江華義兵將) 우성부(禹性傅)의 강화공수책(江華共守策)을 불응하고 강삭지각지세(江朔時角之勢)로 경성수복을 계획하면서 列邑民人을 초유(招諭)하니 충의에 감복되어 많이 응모하여 군세대진(軍勢大振)하니 도성주민도 믿고 적정을 래보(來報)하는자 많아 정일내응(定日內應)하여 대거소탕을 약속하고 연일적노(連日積勞)로 숙환(宿患)이 복발(復發)되어 신고중(辛苦中) 적접인 성여해(成汝諧)가 인적야습(引賊夜襲)해오매 진중이 궤란(潰亂)된지라 대수(大樹)를 배좌(背坐)하여 차이사소(此我死所)라하고 역전고투 끝에 시진기진(矢盡氣盡)하여 47의 장년으로 장열한 순절을 하시니 때는 임진10월 18일이다.

오호(嗚呼)라 이 아니 불망제강학 불망상기원(不忘在溝壑 不忘喪其元)인가 장성인종사관삼인(張姓人從事官三人)도 동순(同殉)하였다. 공의 질 대관(姪大觀)이 수시(收屍)하여朔寧 뒷산 밑에 평가장(平假葬)하여 적해(賊害)를 방지하였더니 결국 적이 도굴취수(盜掘取首)하여 鍾路거리에 달아놓은지 60일 동안 면색(面色)이 매적당시(罵賊當時)와 동일함으로 都人이 그 충義를 못내 애도하고 적도 탄복(嘆復)하였다.

<2면에서 계속...>

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象監事青原府院君諡忠壯行嘉善大夫京畿觀察使沈公神道碑銘并序

공자왈 志士는 불망제구학(不忘在溝壑)하고 용사(勇士)는 불망상기원(不忘喪其元)이라 하였다. 즉 지사는 개천구렁에 버려져있고 용사는 그 머리 없어진을 잊지않는 뜻이니 공이 바로 그런분이다.

공의 휘는 대(岱)요 字는 공망(公望)이요 서돈(西墩)은 그 호요 청송심씨이다.

麗朝에 왜적을 토벌하신 청성백 휘 덕부(德符)의 6세손이요 조선에 청천부원군 안효공(靑川府院君 安孝公)의 5세손이며 고 휘 의겸(義兼)은 경력으로 영의정 청천부원군을 특증(特贈)하고 비(妣)는 증정경부인 고령신씨(高靈申氏)로 찬성 광한(贊成光漢)의 따님으로

明宗元年(1546년 丙午)에 공을 낳았다.

공이 자소호의(自少好義)하여 20에 설죽가(雪竹歌)로 그 지조(志操)를 말하였고 壬申에 문과에 합격하여 삼사(三司)를 거쳐 사인검상(舍人檢詳)을 역임하되 옥당(玉堂)에서 경서를 교정국해(校正國解)하였다.

선조25년(1592년) 임진에 왜적이 불우침범(不虞侵犯)하여 도성을 육박(肉薄)하자 선조대왕께서 파친(播遷)하실제 공이 시강원보덕(侍講院輔德)으로 단기호종(單騎扈從)하여 송도(松都)에 도착하여 양호근왕(兩湖勤王)의 병을 자청왕유(自請往諭)하여 래위(來衛)케 하고 평양에 복명호종(復命扈從)하여 용민(龍灣)에 도착하였을 때 경기감사 권징(權徵)이 공성망명(空城亡命)함으로 중의를 따라 공이 체수되었다. 부임 도중 안주(安州)에서 서애유상공(西厓柳相公)에게 장

大同世譜(庚辰譜)申請案內



2002년도에 발간·배포한 대동세보(족보)를 아직까지 모시지 못한 집안에서는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동세보 : 전 12권(수권1권, 자손록 10권, 색인1권)과CD롬

(대동세보 전 내용과시조 ~ 4세조 산소 동영상을 수록하였으며 모든 한자에 음 표기함)

○보급가격 : 22만원(CD롬 포함) CD롬 별도 구입시: 20,000원 / 수권 별도 구입시: 40,000원

○송금구좌 : 농협 084-01-179314 심명구

※ 대금을 송금하신 후 대종회(02-2267-7857, 팩스: 02-2269-7755)에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즉시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 대동세보 편집자료 제출시 족보예약금을 납부하고 아직 잔금을 내지 않아 받아보지 못한 분들은 '청송심씨대종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명단이 게재되어 있으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책자 강매』 주의

대종회를 사칭하면서 책자구입을 강요하는 전화가 많습니다.

책자를 보내오면 대금을 송금하지 말고 즉시 반송하시기 바라며, 다른 분들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알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종회에서는

대동세보(경진보 : 22만원)와 대동세보 수권속편(10만원) 이 외는 보급하는 책자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1면에서 계속...>

양주목사 고언백(高彦伯)이 그 首을 계취(計取)하여 강화로 함송(函送)되었다가 란정후(亂定後) 시신과 더불어 南陽에 전장(遷葬)하였다. 大王께서 흉보(凶報)를 들으시고 크게 슬퍼하시며 이조판서를 증하고 예장(禮葬)과 치제(致祭)를 명사(命賜)하셨다.

癸巳에 천도후 유족에게 미포(米布)를 월급하여 제종 삼년(祭終三年)케하니 배는 정경부인진주최씨(貞敬夫人全州崔氏)요 우윤홍한(右尹弘汗?)의 따님이다. 5男에 長대복(大復)은 공음(公蔭)으로 九郡邑을 역전(歷典)하고 계자(階資)는 가선(嘉善)이요 청녕군(靑寧君)에 습봉(襲封)되고 차 대임(大臨)은 김오랑(金吾郎)으로 증승지(贈承旨)하고 차 대이(大?) 대제(大濟)는 모두 무후하고 차 대부(大學)는 문과로 사간 응교 사인(司諫 應教 舍人)을 역임하고一女는 군수 崔行에게 출가했다. 갑진에 공을 호성공신이등녹훈(扈聖功臣二等錄勳)과 증좌찬성청원부원군(贈左贊成靑原府院君)하고 庚戌에 선무공신일등녹훈(宣武功臣一等功臣錄勳)과 영의정청원부

원군을 가증(加贈)하고 영조46년 경인에 증시충장(贈諡忠壯)하니 임환불망국월충(臨患不忘國曰忠)이요 사우원아왈(死于原野曰) 장(壯)이라는 뜻이다.

용인군 남사면 완장리 해좌원에 전장(遷葬)함과 동시 산하에 정여(旌閭)를 명수(命堅)하여 여하(閭下) 사우(祠宇)를 봉건하고 삭녕 民人이 애모불기(哀慕不已)하여 순절처(殉節處)에 모옥(茅屋)을 건립하고 세월에 향사(享祀)하다가 正宗15년 신해 5월에 왕명으로 철모건사(撤茅建祠)하고 표절(表節)이라 사액(賜額)하시며 상공채제공(相公蔡濟恭)이 축문을 봉교제(奉敎製)하되 왁쌍수재피(雙樹在彼) 성일赫赫(星日赫赫)하니 충의여쟁(忠義興爭)이로다. 의공지특(義公之特)하여 모옥이제(茅屋以祭)하되 팽임순속(烹飪循俗)하니 시개보공(是豈報公)이리요 성상왈(聖上曰) 자(咨)라 건사익익(建祠翼翼)하고 혈이식지(血以食之)하니 질풍가정(叱風駕霆)하고 방불격사(髣髴格思)하리 환환장좌(桓桓將佐)가 열시여석(列侍如昔)이로다. 생패시장(牲幣是將)하니 감아성의(鑑我誠懿)라하여 향사해온지 수백성상(數百星霜)

을 경과하는 동안 삭녕(朔寧)은 今在北地라 하회미상(下回未詳)하고 용인 사우(祠宇)는 계속수호 하였으나 風雨를 불폐(不蔽)라 후손 및 사림이 개탄(慨嘆)한 나머지 충장사(忠壯祠) 증건추진위원회에서 발의하여 제족(諸族)과 사림이 협력하고 관역보조(官亦補助)해서 중수(重修)를 도모하는바 신도(神道)의 현각(顯刻)이 상권(尙闕)하니 천고유한(千古遺恨)이라.

차비(此碑)를 병수(并樹)키로 하고 이 시장(諡狀)을 근안하여 행적을 약술하고 설죽가(雪竹歌)로 명(銘)을 대한다. 歌曰

雪裏摧 低竹 誰人道他曲 曲兮其節 雪裏也靑靑 眞箇是 歲寒高節 惟竹也夫

설리취저죽 수인도타곡 곡혜기절 설리아청청 진개시 세한고절 유죽야부

「눈 속에 휘어진 대를 뒤라서 굽다하리 굽을 절이면 눈 속에 푸를소나 진실로 세한고절은 대 뿐인가」

서기 1975년 9월 20일 12世孫 景裕 謹撰

朝鮮後期 天才 畫家

현재(玄齋) 심사정(沈師正) 평전(評傳) ③

이제 외래이념인 주자성리학은 수준 높은 조선고유이념으로 탈바꿈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율곡의 성리학은 주자성리학과 구별하여 조선성리학이라 불러야 한다. 이렇게 성리학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자 각처에서 큰 스승을 중심으로 많은 제자들이 길러지니 자연스럽게 학파가 형성돼 나가기 시작했고 여기서 배출된 수많은 선비들은 각기 주변을 성리학 이념으로 교화해 나갔다. 이에 성리학 이념은 백성들에게 삽시간에 널리 전파되어 나갔으니 성리학적 생활규범인 향약(鄕約) 실천운동이 이를 가속화시켰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일반 백성들의 여론이 성리학적 가치기준에 의해 형성되기 시작했다. 신진사람들이 혁신하고자 하는 뜻에 백성들이 비로소 공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과거에는 전통적인 가치기준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신진 사람들의 개혁운동이 다만 정권탈취 현상으로만 보여서 냉담한 반응을 보였던 것인데, 이제 성리학적 가치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자 이제까지 모든 기득권을 독차지해 온 공신세력, 즉 훈구세력들의 비리와 부정부패가 한눈에 잡히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기득권을 지키

기 위해 온갖 비리를 거리낌 없이 저지르던 훈구세력들은 소인(小人)으로 지탄하는 백성들의 여론에 여지없이 내몰리게 되고 개혁에 앞장서는 신진사람들은 공약을 대변하는 군자(君子)로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게 되었다.

이렇게 여론의 향방이 바뀌는 중에 왕실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훈구세력들의 마지막 의지처라 할 수 있었던 명종(明宗, 1534~1567)이 외이들인 순회세자(順懷世子, 1551~1563)를 앞세운 지 4년만에 돌아간다. 이를 대비해서 순회세자가 돌아간 다음에 왕통을 이을 왕손 물색하게 되었는데 명종왕비 인순왕후(仁順王后) 심씨(沈氏, 1532~1575)는 명종과 의논하고 덕흥군(惠興君) 초(岫, 1530~1559)의 셋째아들인 하성군(河城君) 균(鈞, 1552~1608)을 재목으로 지목했다. 이는 왕비의 친정아우인 심의겸(沈義謙, 1535~1587)의 강력한 추천으로 이루어졌던 일이다.

당시 성리학적 이상정치 실현을 꿈꾸던 율곡이이의 동의 아래 진행되었을 것이다. 율곡은 인순왕후의 신임이 두텁던 심의겸의 향배가 보혁 갈등의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리라 판단했다. 그래서 심의겸을 설득하여 성리학 이념을 정치에 구현하는 일에 앞장서게 했다. 기득권층과 결탁해 외척 전횡을 일삼던 구태정치와 정반대의 길을 택하게 했던 것이다.

심의겸은 비록 외척이지만 의리와 명분을 중시하는 사대부였기 때문에 율곡의 제의에 흔쾌히 동의했던 모양이다. 율곡과 이렇게 의기투합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율곡

보다 한 살 많은 8촌형이었다는 사실이 크게 작용했을 듯하다. 그들의 증조모가 모두 평산(平山) 신씨(申氏)로 감찰 신영석(申永錫)의 딸들이었고 신영석의 양친허씨(陽川許氏)는 103세까지 살았다 하니 허부인의 고손자에 해당하는 그들은 그 슬하에서 어린 나이부터 친분을 쌓아왔기 때문이다.

어떻든 명종과 인순왕후의 명령에 따라 하성군은 왕손 사부로 임명된 하락(河洛, ?~1592)으로부터 성리학의 기초 교육을 제대로 받는다. 환성재(喚醒齋) 하락은 남명 조식의 제자였지만 율곡과 뜻을 같이하던 강직한 선비였다. 이에 선조가 등극하고 나서부터는 퇴계 이황을 구심점으로 하여 신진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어 사람 정치의 이상을 펼쳐나가게 된다. 율곡이 앞장서서 개혁정치를 선도하고 16세 소년왕인 선조로 하여금 이를 과감하게 실천하여 성리학의 이상정치를 구현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소년 국왕은 등극 전에 이미 성리학의 기초교육을 받았기에 성리학적 가치기준이 분명했고, 선조를 옹립한 인순왕후와 심의겸이 혁신정치를 지지하고 있으니, 비록 보수세력들이 내심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쉽게 표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물며 백성들의 여론이 전폭적으로 이들 혁신세력을 지지함에 있어서인가, 이에 보수와 혁신의 형세를 살펴며 중립적 태도를 견지해 오던 청송심씨 가문에서는 서서히 신진사람들과 학연을 맺고 혼맥을 이어가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끝>

대동세보 수권속편(외 4종) 신청안내

구 분	페이지	가 격	신청부수
1. 대동세보 수권(속편)	1,134	50,000원	()권
2. 청송심씨세고선(한시집)	448	30,000원	()권
3. 종보축쇄판(1-50회)	400	20,000원	()권
4. 제향홀기(휴대용)	30	3,000원	()권
5. 종사수첩(휴대용)	120	3,000원	()권
6. 뱃 지		1,000원	()개



- 수권속편 질 단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 1질 단위는 발송비 없음.
 - ◆ 질단위 외에는 발송비 3,000원을 대금에 합산하여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 주소는 번지와 동·호수까지 자세하게 기재, 집전화·휴대전화를 꼭 기재요함.
 - ◆ 송금인이 본인인 아니면 반드시 송금인의 이름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1, 2, 3 세권을 일시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4, 5, 6 세가지 물품을 무상으로 드립니다.

* 수령인 주소 및 송금내역

파 명	이 름	집 전 화	
		휴 대 폰	
주 소		우 편 번 호	
송 금 일 자	송 금 인	금 액	송 금 은 행
			()은행 ()지점

▶ 보 내 실 곳 ◀

우편번호 100-310 서울 중구 오장동 14-10(찬경회관)

TEL: 02)2267-7857, 2263-7897 FAX: 02)2269-7755

*송금구좌 농협 084-01-179314(심명구)

기녀 일타홍(妓女一朶紅)의 지혜 ③

- ① 일타홍, 심희수와 의 첫만남
- ② 심총각이 잠에서 깨어나다.
- ③ 띠꺼머리 심총각이 장가를 가다
- ④ 심희수가 과거보러 나갔는데
- ⑤ 다시 일타홍과의 이별

③ 띠꺼머리 심총각이 장가를 가다

그리고 몇일이 지났다. 일타홍은 노마님을 찾아가 도련님의 관한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도련님이 처녀장가를 드셔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던 노마님은 깜짝 놀라며 다시 물었다.

「그애를 장가를 들라는 말이나? 그럼 너는 어찌고...」 사실 노마님으로서는 망나니 같은아들을 지금처럼 훌륭히 이끌어주고 또 어려운 살림을 한마디 불평 없이 이끌어 나가며 나까지도 정성껏 돌보아주던 더 없는 착한 며느리인데 격식 때문에 아들을 또 장가를 들여야 한다니 기막힌 노릇이었다. 그리고 일타홍이 그런데 까지 신경을 쓰고 있다니 대견하고 고맙기는 하나 일타홍에겐 미안하고 안쓰러운일이 아닐수가없다.

「신분이야 어쨌든 너를두고 어찌또 며느리를 볼 수가 있겠는가? 아니 될 말이다」

「제가이 댁으로 들어온 것도 도련님 잘되게 하기 위해서이고 노마님이 소인네를이 댁에 드린 것도 또한 같은 일이 아니옵니까? 지금이대로 있는다면 애당초 마음 먹었던 일은 다 틀려지고 마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 같이 가난한 집에 누가대가집 규수를 줄라고 하겠느냐?」

「그런 걱정은 마시옵소서, 그동안 규수감을 물색하였는데 지금 승지를 지내고 계시는 노극진(盧克眞) 영감님 댁 규수가 매우 정숙하여 도련님의 배필이 되기에 손색이 없을 듯 하오니 매과를 보내시면 반듯이 성사가 되실 것이 옳습니다」

「승지며슬을 하는 집안에서 뭐가 부족해 사랑하는 따님을 우리같이 가난뱅이에게 주겠느냐」

「아니옵니다 마님께서 매과를 보내어 청혼하시면 거절은 아니 하실 것이 옳습니다」

「너는 무엇을 믿고 그런소리를 하느냐」

「노극진(盧克眞) 승지는 말씀 올리면 도련님의 스승

이신 노수신 영감님의 아우가 되시는 분이옵니다. 형님께 물어보시면 훌륭한 사람이란 것을 알게 될 터이오니 어느 부모가 도련님 같은 신랑감을 마다하고 하겠나이까?」노마님은 일타홍으로부터 감명을 받은 것이 하나들도 아닌데 또 나를 놀라게 하는구나하였다.

다음날 아침 노마님은 노극진댁으로 매과를 보냈는데五日이지나자 허혼 하겠다는 기별이 왔다. 그로부터 두달 후에 혼례를 올리고 띠꺼머리 총각 심희수는 어엿한 선비가 되었다.

일타홍은 자기가 서둘러 사랑하는도련님을 장가를 드렸으나 서방님이 새색시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 아무리 그러리라고는 각오하였으나 그착잡한 심경을 가늠 길이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심희수는 장가를 들고 나서부터 공부도 하지 않고 옛날버릇 이라도 나온 듯 그저 그날그날 술방 출입이나 하며 허송세월만 하는 것이다. 일타홍이 아무리 충고를 해도 이제는 어떤 말도 들으려하지 않는다. 일타홍은 울분을 참지 못하여 보따리를 싸놓고 마님에게 나아갔다.

「소인네가기녀의 몸으로 이 댁에들어 오게된 것은도련님 한분을 위해서였는데 이제는 성공의 날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마당에 다시 학업을 게을리 하고 소인네 충고도 무용지물어오니 소인네는 별도리 없이 이 댁을 떠날까 하옵니다」하니 노마님은 깜짝 놀라며

「네가이 집을 떠난다니 그게 말이 되느냐」하고 간곡히 말했으나 끝내 집을 나가고 말았다.

그리고 일타홍은 나가면서

「소인네가 이리하는 것도 서방님이 정신을 차리시어 다시 면학에 분발하게 하기 위한 것이 옳습니다」하였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한 남자를 성공시키겠다는 일념으로 생면 부지의 심씨댁에 들어와 3년 간을 서방님 글공부며 살림살이며 노마님을 모시기까지 고생고생 하였으나 성공문턱에서 집을 나오게되니 그 비통한 심정을 가늠 길이 없었다 일타홍은 목적지도 없는 길을 지향없이 걸으며 두 뺨에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심희수는 한 방중이 되어서야 술집에서 나와 취한 몸으로 집에 돌아왔다. 아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자 안방으로 불려드렸다. 그리고 아무 말도 없이 노기에 찬 얼굴로 언제까지고 아들만 노려보고 있던 노마님은 갑자기 벼락 치듯 큰 소리로

「이놈 꿇어 앉지 못하겠느냐」어머님의 추상같은 호령에 깜짝 놀란 심희수는 얼결에 두 무릎을 꿇었다.

「이놈아 너도사람이나」두 번째의 큰 호령에 심희수는 다시 몸이 움추러 들었다. 한참을 있다가 노부인은 음성을 낮추어 말을이었다.

「너는 우리 가문의 심 덕자부자(沈德字 符字)를 쓰시는 개국공신 심정승 어른의 7대 손으로서 조선조에 들어와 정승이 다섯분이나 나온 명문가의 후손이 아니더냐」 그것은 저도압니다」

「이놈아 네가알긴 뭘 알아못난 놈...」그러더니 이번에는 비통한 얼굴을 하고 낮으막한 목소리로

「우리 개국공신 가문에 너 같은놈이 나와 집안을 망칠 줄이야누가 알았겠느냐 정말 통탄할 일이다. 그애는 너 같은놈을 사람을 만들겠다고 그리 애를 쓰다가 결국은 집에서 나가버렸으니 그간에 그 애가애쓴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듯 아픈 것을 어찌 하겠느냐!」 「어머님 지금말씀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래 그애는너를 다시 일어나게 하기 위해 이 집을 나가버렸느니라. 나는 이제 스스로 죽어 조상님께 사죄할 것이다」 심희수는 깜짝 놀랐다. 일타홍이 나갔다는 것도 충격이지만 어머니가 자결하시겠다는 말에는 너무 놀라할 말을 잃었다.

「어머님! 소자가 미련하여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착실히 공부하여 가문의 영광을 다시 찾겠습니다. 그런데 일타홍은 어디로 갔습니까? 간 곳을 알면 제가 가서 데려오겠습니다. 일타홍이야 말로 제게는 은인이 아니옵니까?」

「그러나 간 곳을 모르니 당장 찾아올 수도 없겠거니와 안다 하더라도 그애는 오지 않을 것이다. 그애가 울며 나가면서 마지막 남긴 말이 네가 과거에 급제하기 전에는 이 집에 발을 들여놓지 않겠다고 하였느니라」심희수는 그 말을 듣고깊이 뉘우치며 한숨을 쉬었다.

일타홍이야 말로 나에게는더 없는 은인인 것을... 그가 아니면 어찌 내가 이렇게 타락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도 없었을 것이며 어머니를 봉양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양가(良家) 규수에게 장가를 갈 수도 없었을 것이라 생각하면 할수록 배은망덕한 내가 싫었다.

심희수는 이제부터라도 다시 공부를 하여 과거에 급제하고 한시코 일타홍을 찾아 집으로 데려오겠다는 약속을 어머니께 드리고 다시 글공부에만 열중하게 되었다.

<다음호에 계속...>

2007년 秋季時享日表

世	諱(이름)	陽曆	음력	曜日	所在地
始祖	文林郎公(휘:洪孚)	10.19	9.9	金	靑松郡 청송읍 덕리 보광산
	중 대 산 소	10.19	9.9	金	靑松邑 부곡리 중대산
二	閣門祇候公(휘:淵)	10.21	9.11	日	益山市 함열읍 남당리 남당산
二	奉翊大夫公(휘:晟)	11.4	9.25	日	鐵原郡 동송읍 양지리(설단)
三	靑華府院君(휘:龍)	10.23	9.13	火	安城市 당왕동 산소
三	淸華부원군配位金氏	10.23	9.13	火	安城市 도기동 산소
三	판 서 공(휘:漣)	11.4	9.25	日	鐵原郡 동송읍 양지리(설단)
三	상호군공(휘:卿)	11.4	9.25	日	鐵原郡 동송읍 양지리(설단)
四	靑城伯(휘:德符)	10.25	9.15	木	漣川郡 미산면 아미리 산소
四	淸성백配位淸州宋氏	10.27	9.17	土	淸州市 흥덕구 분평동 산소
五	도총제공(휘:仁鳳)	10.27	9.17	土	淸州市 흥덕구 분평동 산소
五	판사공(휘:義龜)	11.24	10.15	土	全南 보성군 북내면 장천리
五	지성주사공(휘:繼年)	12.24	10.15	土	光州市 광산구 송치동 용진산
五	지성주사공配位崔氏	11.25	10.16	日	全南 장성군 황용면 외곡리

世	諱(이름)	陽曆	음력	曜日	所在地
五	仁壽府尹公(휘:澄)	10.27	9.17	土	全北 완주군 화산면 운산리
五	安孝公(휘:溫)	9.25	8.15	秋夕	水原 영통구 의의동 산의실
五	三韓國大夫人順興安	10.24	9.14	水	安城市 금광면 오흥리 능말
五	淸 원 군(휘:淙)	11.17	10.8	土	坡州市 문산읍 사목리
五	현령공(휘:天柱)	11.4	9月未週	日	安東市 풍천면 인금리
五	돈제공(휘:天湜)	11.21	10.12	水	慶南 의령군 정곡면 백곡리
六	평산부사공(휘:灝)	11.11	10.2	日	原州 단계동 사천마을(설단)
六	좌랑공(휘:溝)	11.24	10.15	土	全南 보성군 북내면 장천리
六	애암공(휘:涓)	11.26	10.17	月	光州市 광산구 감적동가정산
六	良惠公(휘:石雋)	10.30	9.20	火	龍仁市 포곡면 가실리
六	領中樞公(휘:濬)	11.10	10.1	土	水原시영통구 의의동 산의실
六	恭肅恭(휘:滄)	9.25	8.15	秋夕	파주시 월농면 영태리 山所
六	靖夷公(휘:決)	11.11	10월첫째	日	京畿 용인시 양성면
六	증참판공(휘:孝鼎)	11.14	10.5	水	靑松郡 과천면 용덕리(설단)
六	연일공(휘:自鼎)	11.18	10월둘째	日	포항시 남구 대송면 대각리

康主簿公時享(恭肅公養父) 陽曆 10월31일(水).
매년 음력 9월21일 구미시 고아읍 예강1리 묘소.

매헌 윤봉길 의사 ③

- ① 故國山川을 뒤로하고
- ② 생애 그날을 위하여
- ③ 金九와의 마지막 조찬

③ 金九와의 마지막 조찬

11월 27일은 이곳에 도착한지 10일만에 마지막으로 재편은 제4사단 군법회의에서 받기로 되어 그곳으로 이송되어 온 것이다. 검찰과 부장, 심판장, 그리고 배석판사 등은 윤 의사와 정면 대결하였으나 日人들은 정신싸움에서 지고 말았다. 이겼다고 하여 재편이 유리해지는 것은 아니나 그러나 죽음을 앞둔 그 시점에서 눈에는 웃음을 담고 위세가 당당한 그 자태를 보고 주눅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지 그 위엄 앞에 말을 멈추었다. 윤 의사는 이날 아리키 육군상 이하 여럿이 지켜보는 가운데 총살형을 언도받았다. 윤 의사는 유언장 두 통을 부쳤는데 한 통은 집으로 또 한 통은 동지들에게 부쳤다. 동지들에게 보낸 유서는 앞으로 자기의 뜻을 이어 계속 분투할 것을 부탁하였고 집으로 부친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고 있었다. 「불초자식이 가출 할 때 육체적으로는 이미 생사를 결정지은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모 형제께서는 저의 죽음을 너무 비통하게 생각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만 포대기에 쌓여있는 어린 자식이 걱정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2000만 동포의 안위가 걱정됩니다.」 윤 의사는 죽는 날 까지도 자기 안위보다는 동포의 걱정을 하고 있었다.

드디어 12월 18일 윤 의사에게 2일 내에 사형집행이 있을 것이라는 통지가 왔다. 그리고 사형집행장소로 가기 위해 구금소를 나와 6명의 헌병에 호위를 받으며 오사카 역으로 호송되었다. 그러나 장소가 변경되어 다시 가나자와(金澤)로와 법무부 구금소에 수감되었다. 사형장은 우찌가와무라(内川村)내에 있는 육군작업장 한 모퉁이로 지정되어 있었다. 집행시간은 오전 7시. 현장에는高三尺 폭이三尺의 십자형틀과 판 하나가 마련되었다. 사형집행시간과 장소가 정해지면서 가나자와시는 비상경비 체계를 선포하고 이곳을 경비하기 위하여 헌병과 경찰이 500명이나 출동하였다.

아침이 밝았다. 법무관에 의해 사형장으로 가는데 길목 양측에는 경비병들이 촘촘히 서서 경비하고 있다.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절대비밀로 행해지고 있었으며 차는 45분을 달려 사형 집행장인 軍작업장에 도착하였다. 사형장은 아주 험한 절벽 앞에 마련되어 있는데, 日軍은 제일 험하다는 이곳을 선택하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지 많은 경비병력이 동원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을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 알만 하였다. 윤 의사는 갈아논 거적 위에 두 무릎을 나란히 하고 앉아 팔은 뒤로하여 십자가 틀에 묶고 지금까지 쓰고 다니던 중절모자가 벗겨지고 백색의 안대로 눈을 가렸다.

집행장소에는 입회인으로 사끼구찌 제 9사단 군법회의 판사를 비롯하여 15명의 軍官이 도열하고 있는 가운데 집행관이 다가와 「남길 말이 없는가?」하고 물으니, 윤 의사는 「할말이 없으니 빨리 집행하라」 말하고 창외문(倡義文)을 크게 읊기 시작하였다. 니시노(西野) 중위의 구호에 따라 두발의 총탄이 발사되었다. 총구를 떠난 두발의 총탄은 정확하게 가슴한 복판을 뚫었다. 뱅뱅하던 음영(吟詠)소리는 순간 끊어지고 고개가 아래로 떨어졌다. 때는 1932년 12월 19일 오전 7시 40분!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장렬하게 최후를 마친 윤 의사는 정확히 만24년 6개월이라는 짧은 생애 마감하고 승화(昇華)한 것이다. 형이 집행된 후 부친이 시체 인도를 요구했으나 불응한 채 윤 의사의 시체를 암장하였다. 장소는 육군 묘지로 올라 다니는 통로였으며 군인묘지에 참배 오는 사람들의 통로이고 바로 그곳이 쓰레기를 태우는 곳이기도 하다. 악랄한 日軍들은 죽이는 것도 모자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짓밟고 다니도록 하고 쓰레기를 시체 위에서 소각하도록 하였으니 이는 죽은 시체

마저도 능멸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실로 분통한 일이 아닌가.

1945년 8월 1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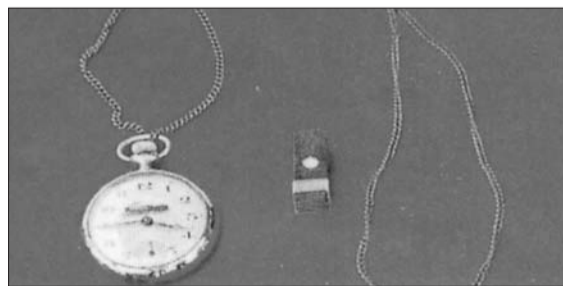
이날은 日人에게는 나라가 망한 날이지만, 우리나라는 일본에 합병 당한지 36년 만에 새 세상의 문이 열린 날이다.

이날의 기쁨! 이날의 감격! 삼천만 모든 국민은 밤을 새워 만세를 외쳤다. 그로부터 3개월 후 백범 金九 선생도 많은 임시정부 요인들과 함께 그리도 목 메이던 조국 땅을 밟았다. 윤 의사의 유해는 광복 후 그리던 고국 땅에 유골로 돌아왔다. 암장 된지 14년 만인 1946년에 많은 동포들의 노력에 의해 유해가 발굴되었던 것이다.

1945년 8월 15일 현재 일본 각 지역에 250여만 명의 한인이 살고 있었으며 동포들은 조국광복을 맞아 누구보다도 기뻐하였고 광복과 동시에 일본 각지에서 조선인 연맹을 결성하였다.

다음해 3월 1일 조선인 연맹은 각 지역별로 3.1운동 26주년 기념식을 성대히 거행하였으며, 다음날 아침 10시경 조선연맹 동경본부에서 한국 임시정부요인 4명과 함께 가나자와 지부에 도착하였다. 14년 전에도 가나자와 에는 100여 가구의 동포들이 살고 있었는데 오늘은 동포 청년들에게 14년 전 조국을 위해 스러져간 윤 의사의 유해를 발굴하러 왔다는 취지와 함께 협조를 당부하였다. 동포들은 윤 의사를 구국의 영웅이라 추앙하며 유해발굴에 앞장서서 나갔다.

가나자와에는 6개지부를 두고 50여명이 각자 소임을 부여받고 유해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나 매행방이 묘연하여 찾을 수가 없었으며 가나자와 9사단에서 사형 집행한 것을 알고 9사단을 찾아갔으나 아무도 안다는 자가 없이 회피만 하는데 거기에 말단 직원들은 도망가기에 비뻔다. 패전하고 질서도 없는 상태에서 어떤 해라도 당하지 않나 두려워하기 때문이었다. 3월 4일, 어제 탐문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한 곳을 파보기로 결정하여 처음에 간 곳은 가나자와 시영묘소였는데 이에 동원된 인원만도 50여명에 이른다. 이렇게 시작한 발굴 작업은 3일이 지나도록 그 윤곽 좇아 잡지 못하고, 당시에 참가했다는 헌병 군속등 여러 명을 데려다 찾아보았으나 그것도 역시 헛수고만 하고 말았다. 4일 쯤 되던 3월 6일, 다행히 그때 불경을 읽었다는 비구니를 찾아내 암매장한 곳을 찾아달라 하였는데 80이 가까워 보이는 여승은 울면서 계속 나무아미타불을 독경하면서 그가 손으로 한 곳을 가리키니 그곳은 여러 날을 왔다 갔다 하며 쉬던 곳이 었다. 발굴을 담당한 5인조가 정성을 드려 파기 시작하였다. 두 자쯤 내려가니 형을 집행할 때 썼던 십자가가 나오고 다음은 신발, 다음은 판 뚜껑이 나왔다. 참석한 모



▶ 회중시계와 인장(보물제568호)

든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일제히 탄성을 질렀다. 숨을 죽이고 조심스럽게 판 뚜껑을 열으니 제일 먼저 나온 것은 피투성이 흔적이 뚜렷한 상의였고 사망으로 잃긴 나무 뿌리를 헤치고 보니 유골이 온전히 보전되어 있다.

작업담당자들은 뼈 조각을 하나씩 맞춰 나갔다. 그런데 다 맞추고 보니 208개라야 되는데 201개 밖에 없어 다시 살펴본즉 손가락뼈가 없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고문을 당할 때 손가락을 하나씩 잘라냈던 것이 분명하다. 이것을 본 대원들은 모두가 흐느끼며 눈물을 흘렸다. 그런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도 사형집행을 할 때까지 그렇게 의연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니 참으로 그 불굴의 정신이 한없이 존경스러웠다.

23세에 비장한 마음으로 조국을 떠났던 윤 의사는 집을 나온지 16년 만에 그렇게 유해로 돌아온 것이다. 유해



는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尹奉吉, 李奉昌, 白貞基) 의사와 함께 세 분의 유해가 도착하였으며 이 三人의 유해는 김구 선생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함께 故國 땅을 밟게 된 것이다. 이날 김구 선생은 부산까지 내려와 직접 영접을 하였다. 그리고 5월 21일 부산에서는 열사들을 위한 추도식이 성대하게 거행되었으며 다음날 유해는 다시 서울로 이송되었다.

7월 7일 10만 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세 분 열사에 대한 국민장을 경건한 마음으로 치루었고 효창공원 묘지까지 가는 길은 긴 행렬로 이루어져 결코 외롭지 않았다. 곳곳마다 애도하는 군중들의 물결이 人山人海를 이루고 악대는 곡을 연주하며 좁은 길을 열고 나간다. 다음에 화환대열, 만장대열이 이어졌고 영구차는 여학생들에 외위쌍인체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다. 이날의 송고하고 장엄한 장례식은 어느 왕의 국장보다도 더욱 엄숙하였다.

그 후 61년! 나는 효창공원으로 三烈士에 대한 참배를 하러갔다. 세분의 분묘가 나란히 안장되어 있는데 그간에 관리를 잘한 탓으로 정결하고 엄숙해 보여 과연 성지다운 면모를 보여 기뻐다. 나는 윤 의사로부터 三義士 묘소에 차례로 큰 절로 재배하였다. 그곳에는 삼열사 말고도 또한 한 분의 가묘가 있는데 관리인에게 물어보니 안중근 의사의 가묘라고 했다. 유해가 없어 가묘를 쓴 것은 이해하겠으나 비석 하나 없는 무덤이 너무도 쓸쓸해보였다.

다음날 예산 충의사를 찾았다. 구석구석 다 돌아보았다. 돌아오는 길에 많은 것을 느꼈다. 항상 나보다는 가족을 가족보다는 나라를 우선하는 그 송고하고 고매한 애국정신이야말로 영원히 역사에 남을 것이다. <끝>

宗 事 消 息

青松沈氏 本郷 徳川마을의 標石을 세우다



▷ 告由祭(始祖山所) 初獻 榮燮 亞獻 相翰 終獻 載烈



▷ 청송군 파천면 덕천리 본향 사적비

지난 8월 3일 靑松郡 파천면 徳川마을에서는 靑松沈氏의 本郷을 알리는 標石과 심씨 본향의 내력을 적은 史蹟碑의 建立行事가 進 行되었다. 이 行事에는 大宗會任員과 많은 일가분들이 참여하여 盛況을 이루었는데 그 중에도 數千 萬원을 출연하여 爲先사업에 성의를 다하여 주신 相翰씨(三芝石材工業株式會社 副社長)에게 많은 격려와 갈채를 보냈다. 행사가 끝난 다음에는 시조묘소

에서 告由祭를 奉享하였으며 이어 하산하여 오손도손 식사를 하게되었는데 그 풍경이 자못 흥겨워 보였다.

史蹟碑의 題名 : 靑松沈氏 本郷 徳川마을

靑松沈氏 大宗會 文化理事 載烈 지음
靑松沈氏 岳隱公 十九代孫 相翰 建立

光州·全南 入郷 先祖님을 찾아서

지방순회 뿌리교육(강사 : 광주 愚慶)

판사공(諱 義龜)과

공의 휘 의구(諱 義龜) 자 낙서(字 洛瑞) 호 송파(號 松坡)이니 아버지 청성백(定安公) 휘 덕부(諱 德符)와 어머니 淸州宋氏와의 사이에 둘째로 출생하여 운곡 원천석(耘谷 元天錫) 선생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의금부판사로 있으면서 조정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데 공헌한바 있다고 한다.

1418년 무술옥사 사건이 발발하여 막내동생 동지총제 공이 서대문 밖에서 처형되고 다섯째 동생 안효공께서도 수원에서 사약을 받고 자진(自盡) 했으며 여러 형제 속 질간이 변방으로 유배되어 온 집안이 쓸데없이 되었으므로 세상이 무상함을 한탄하고 砥平縣(현 양평)에 들어가서 세상을 등지고 나오지 않았다. 묘는 마전(麻田) 아버지 묘역내에 장사하였으나 난리를 겪으면서 애석하게도 실전되었다. 공의 아들 휘 구(諱 溝 1394-1493) 호 면암정(面巖亭)은 이조좌랑으로 무술옥사 사건의 부당함과 간신배들을 물리쳐 줄 것을 간청하다가 보성으로 유배되었다.

귀양이 풀리고 자유로운 몸이 되었지만 단종의 순위(遜位) 소식을 듣고 수일동안 통곡을 하였다하며 세조가 수차례 걸쳐 출사할 것을 권했지만 나아가지 않았다. 보성군 북내면 죽동에 정착하여 계방산 중턱 큰바위 위에 정자를 짓고 이름하여 면암정(面巖亭)이라 하고 후진을

위해 강학하니 선비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면암정은 아들 유눌(由訥, 돈령부첨정)과 유강(由剛, 증참의)을 두었는데 모두 현달하여 보성 강진 등지에 살고 있으며 후손들이 실전된 선조님의 제단을 보성군 북내면 장천리에 설단하고 매년 음력 10월 15일 향사하고 있다. 수필가이며 교육가인 沈禎燮이 그 집안 종손이다.

지성주사공(諱 繼年)과

공의 휘 계년(諱 繼年) 자 서일(瑞日) 호 둔재(遁齋)로 아버지 청성백(定安公) 휘 덕부(德符) 淸州宋氏와의 사이에 셋째로 출생하여 증형 판사공과 함께 운곡 원천석(耘谷 元天錫) 선생 문하에서 태종(李芳遠)과 동문 수학하였다.

1389년(昌王 1) 지성주사(知成州事)에 임명되어 지방행정관으로 선정을 하고 있던 중 1392년 이성계가 역성혁명을 일으켜 등극하자 고려의 멸망을 한탄하고 관직을 내던지고 개성으로 돌아와 은거하였다.

그 후 동문수학한 세자 이방원이 수차출사할 것을 권하였으나 불사이군의 대의를 지키기 위하여 응하지 않고 함경도 북청으로 피신하였다.

1400년(定宗 2)에 공이 뜻하지 아닌 나주목사에 임명되었으므로 부임하는 양 가족을 이끌고 남행하다가 장성군 남면 땅에 가족을 은거시키고 공은 경기도 안성의 할아버지 묘소 인근 實旺寺로 들어가 불도에 입문하여 속세를 벗어나 버렸다. 묘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치동 湧珍山 石溪洞 子坐이다.

공의 아들 휘 연(涓) 호 애암(愛菴)인데 1414년(太宗

14년) 우리 심문중에서는 조선조에 들어서 최초로 대과 급제한 수재였으나 애석하게도 24세의 나이로 조졸하였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다행히도 손자 종하(宗夏)에서 증손 璵, 珪, 璣 3형제를 두어 후손들이 장성 광주 나주 함평 등지에 살고 있으며 1834년(純祖 34) 호남유림들과 본孫이 장성군 남면 마령리에 良溪洞을 창건하고 정안공을 주벽으로 지성주사공과 애암공 3대를 봉안하고 매년 음력 9월 20일 유림들과 후손이 향사하고 있다. 前법무장관 沈相明, 변호사 沈宜燮 등이 이 집안 후손이다.

인수부윤공후 도정공(諱 淳)과

공의 휘 순(諱 淳)은 용양위 부사직(副司直)을 거쳐 돈령부 도정을 역임하고 기묘사화가 일어나자 홀연히 벼슬을 버리고 옥괴현 순자강변으로 낙향한 분이다.

공의 고조는 인수부윤이요, 증조는 양혜공이며 할아버지는 경기관찰사 망세정이요 아버지는 남원부사와 해주목사를 역임한 휘 안지(安智)와 어머니 慶州金氏와의 사이에 독신으로 출생하여 유년기에는 외가택인 南原杜洞에서 자랐으며 성장하여 인접 현인 옥과 습상촌(濕霜村) 河東鄭氏 직장공 휘 치(薙, 경령공 鄭地장군의 현손)의 따남에 장가들면서 이곳에 정착하게 된다.

공의 아들 휘 광형(光亨) 호 제호정(霽湖亭)은 건너다 보이는 입면 제월리 군촌에 새 터를 잡고 이주하였으므로 이곳이 세거지가 된 것이다.

1535년 군지촌정사(涪池村精舍, 국가지정 문화재 155호)를 짓고 또 8년 후인 1543년 군지촌정사 우측 동산 순자강변에 함허정(涵虛亭, 도지정 문화재 160호)을 지어 학문과 수양의 처소로 삼았다. <6면에서 계속...>

<5면에 계속...>

도정공의 9대손 휘 창진(昌鎭)이 주축이 되어 호남 유림들의 발의로 1799년(정조 23) 군촌 상부에 구암사(龜岩祠)를 창건하여 四賢(忘世亭, 露湖亭, 杜菴, 龜巖)을 봉안하고 매년 음력 3월 16일 유림들이 봉사하고 있다.

공의 묘는 전북 순창군 풍산면 香佳里 癸坐이다.

후손들이 더욱 번성하여 곡성, 광주, 순천, 여수 등지에 분포되어 있으며, 前군수 고 沈聖植, 前곡성종회장 沈鍾植, 반석산업개발 대표 沈判求, 前동아여고 교장 沈正植 등이 이 집안 후손이다.

인수부윤공후 정랑공(諱 澧)파

공의 휘 풍(澧) 호 묵軒(默軒)이며 이조정랑이다. 조정암(趙靜庵)선생의 문인으로 기묘사화가 일어나자 스승을 구명하기 위하여 거침없이 상소를 올린 죄목으로 전라도 칠산으로 유배된 분이다 유배가 풀려나서는 나주(光山)땅에 정착하였다.

공의 고조는 인수부윤공이요 증조 양해공이며 할아버지 경기관찰사 망세정(望世)이요. 아버지 남원부사와 해주목사를 역임한 휘 안지(諱 安智)와 어머니 泗川陸氏와의 사이에 넷째아들로 출생하여 향년 82세로 상수하였다.

묘는 나주시 寶山洞 山 41-1 艮坐原이다.

공의 아들 휘 광헌(諱 光憲) 호 삼암(三巖)은 명가의 후예로 훈련주부이었으나 나라에 충직한 마음이 남달랐다. 1592년 임진란을 당하여 수백명의 의병을 규합하고 이순신장군 막하에 들어가 옥포전에서 대승을 했고 노량, 안골포, 강릉전에 참전하여 왜적을 대파하였으니 선조께서는 김해부사를 제수하였고 선무원종공신에 훈봉하였다.

1963년 후손들이 주축이되어 광주시 광산구 동호동 남동에 東湖祠를 창건하여 정안공을 주벽으로 인수부윤공, 망세정공, 묵헌공, 삼암공 다섯분 선조를 봉안하고 매년 음력 2월 25일 이 고장 유림들이 향사하고 있다

◇ 문화적 가치가 충분한 만취정(晩翠亭) ◇

공의 13대손 휘 원표(遠杓) 호 만취정에 의해 1913년에 건립하여 강학, 수양의 처소로 삼았다. 원표공은 20세 이전에 노사기(盧沙奇)선생에게 道를 터득했고 연재(淵齋) 宋선생에 의리를 배워서 명성이 세상에 알려자 조정에서는 선공감역의 벼슬이 내렸으나 사양하고 의병장 심수택(沈守澤)을 도와 많은 협찬을 하였으며 왜군이 주는 은사금도 단호하게 거절한 칼칼한 선비였다.

만취정의 구조는 3칸으로 8각지붕이며 중앙의 거실 1칸과 4면 1칸씩이 마루로 구성되었으며 正面 만취정 현관을 비롯하여 40여개 名士들의 詩文이 걸려 있고, 한말의 명필 해강 金圭鎭과 석촌 尹用求의 大書 筆畵는 정자 운치를 더욱 매료하고 있으며 고종황제의 어진(御眞)을 그렸던 채룡신(蔡龍臣) 화가가 그린 원표공의 초상 진본이 소장되어 있으므로 2006년 광주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이다.

공의 후손이 번성하여 광주, 나주, 장성 등지에 분포되어 있으며, 前광주시 행정부시장 沈載敏, 광주향교장 沈鍾德, 한샘개발대표 沈澈求 등이 이 집안 후손이다.

안효공후 사복시정공(諱 纘)파

공의 휘 찬(諱 纘)이요, 자는 仲承이며 벼슬이 사복시정이다. 안효공의 8대손이며 공숙공의 7대손으로 3대정승을 지낸 부조묘(不祧廟) 집안이다.

6대조 휘 린(諱 潏)은 병조참의요, 5대조 휘 순로(諱 順路)는 좌찬성이며 고조 휘 건(諱 幹)은 진사요 증조 휘 종원(諱 宗元)은 제천현감이며 할아버지 휘 순(諱 荀)은 풍덕군수요 아버지 부위 휘 인유(諱 仁裕)와 어머니 文化柳氏와의 사이에 둘째로 출생하였다.

공의 7대조 공숙공이 이곳 농은(農隱 현 谷城郡 古達面 고달리) 마을에서 잠시 은거하다가 벼슬길로 나아갔다는 사실이 南原誌(그 때는 남원땅)에 실려있으므로 조상의 別邸를 지키면서 대대로 살아오다가 그 터에 유허비(遺墟碑)를 세운 것이니 감회가 새롭다 할 것이다.

공의 묘는 순천시 황전면 辛坐原이며 아들 정시(挺時), 정민(挺民), 정일(挺一), 정방(挺邦) 4형제가 모두 현달하여 곡성 남원구례 순천 등지에서 살고 있다.

곡성군 前기획실장 沈正燮씨가 이 집안 후손이다.

안효공후 처사공(諱 訓)파

공의 휘는 훈(訓)인바 안효공이 7대조요, 공숙공은 6대조이며 이경공(휘 漸)이 5대조요 호양공(휘 順徑)은 고조이며 진사공(휘 興源)이 증조요 곡산공(휘 鑣)은 할아버지이며 아버지 훈도공(휘 友賢)과 어머니 全義李氏와의 사이에 2남 2녀 중 차남으로 김포시 대곶면 약암리 藥山에서 출생하였다.

이 집이 3대정승을 지낸 부조묘(不祧廟) 집으로 우리 청송심문에서는 가장 현달한 집이라 할 것이다.

아버지 훈도공이 31세에 조졸하였으므로 어머니 슬하에서 성장하여 광산김씨 휘 大連의 따님과 혼인하고 살

았으나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가족을 거느리고 남하하여 장성군 삼서면 유평리에 사시는 숙부(휘 友信)택에서 피난하였다가 광주시 樓門洞에 정착하게 되었다.

공은 근검절약을 일상화하여 治産하였고 자손 교육에 진력하였다. 1626년 5월 21일 졸하니 光州市 松荷洞 金堂山 未坐原에 배위와 합폄으로 장사하였고 이곳에는 공의 아들, 손자, 증손 9기 묘역이 公園처럼 잘 정비되었고 그 아래 제실 松荷齋도 말끔하게 단장되어 사뭇 숙연한 분위기를 갖게 한다.

청송심씨대중회 고문 沈相琦, 前국회의원 故 沈相宇, 금당산 종회장 沈相八, 前농촌지도소장 沈堯燮 등이 이 집안 후손이다.

안효공후 선무원종공신(諱 友信)파

공의 휘 友信 자 公擇이니 안효공의 6대손으로 김포시 대곶면 약암리에서 아버지인 곡산공(휘 鑣)과 어머니 竹山朴氏의 사이에 5형제 중 셋째아들로 출생하였다.

1577년 무과급제하여 선전관을 거쳐 군기사 첨정으로서 있을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모든 재산을 팔아서 군자금을 마련하고 수천명의 의병을 모집하여 수원에서 적의 선봉을 무찔러 대승을 거두었으며 그 후 창 의사 김천일(金千鎰)과 함께 진주성을 사수하고자 9박 10일 동안 혈전을 하였으나 증과부족으로 성이 함락되자 金千鎰, 崔慶會 등 三壯士와 남강에 투신 순절한 충신이다 난 후에 선무원종공신 1등에 책록되었으며 병조참판에 추증되었다.

1713년 장성군 삼서면 학성리에 長川祠를 건립하여 제향해 오다가 1816년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손되었다.

1990년 장성군 삼서면 부구동에 이 고장 유림들과 본손의 발의로 彪義祠를 건립하여 공의 위패를 봉안하고 향사하고 있다.

우연의 일치라 할까 1995년 장성군 삼서면 학성리에 공이 임진왜란 때 의병을 훈련시키던 곳에 우리나라 군사교육의 요람인 尙武臺가 이주해 모면서 정내에 沈友信 장군의 동상을 건립하였고 바로 건너다 보이는 산 중턱에는 공의 묘소가 있다

공의 초배 全州李氏는 기출이 없었고 계배 長興朴氏와의 사이에 아들 허 극 계 3형제가 모두 현달하여 장성 영광 부안 정읍 등지에 살고 있으며, 관섭 상호 행섭 등이 이 집안 후손이다.

<끝>

알림 派(地域)宗會旗 製作 申請

2006년부터 우리門中の 家章을 변경하여 사용함에 따라 각 派宗會 또는 地域宗會에서 보유하고 있는 종회기를 교체하여야 하는바, 대종회에서 일괄 제작하여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어 소요량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 ▶ 기존의 종회기를 교체하거나
- ▶ 宗會旗를 새로 제작하고자 하는 派(地域)宗會에서는 다음과 같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靑松沈氏大宗會(02-2267-7857)

宗 會 名	靑 松 沈 氏	宗 會
住 所		
電 話 番 號	宅 :	- -
	휴대폰 :	- -
신 청 내 용	종회기(깃대 포함) : 180,000원 종회기(깃대 제외) : 150,000원	

종원님들의 기고(寄稿)를 환영합니다.

靑松報는 청송심씨의 소식입니다. 각 계파, 지역 종친회 정기총회 및 행사, 선조 유적, 기행문, 시, 수필, 합격, 승진, 체험 등 알리고 싶은 소식을 기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낼곳 : (우) 100-310
 서울 중구 오장동 14-10
 청송심씨대중회 문화부
 TEL : 02-2267-7857, 02-2263-7897
 FAX : 02-2269-7755

강좌

■ 심갑보(三益 THK 株) 부회장의 현장경영학 ■



부회장 심갑보

능력사회로 가자

허위 학력과동으로 세상이 온통 어수선했던 지난 8월 어느 날 한 신문기사가 우리에게 신선한 감동을 안겨주었다. “상고 출신 부끄러워 한적 없어요”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은 BMW코리아 김효준 사장에 관한 기사였다. 김효준 사장은 덕수상고 졸업 후 줄곧 직장생활을 하다가 30대 중반에야 방송통신대에 들어가 40세(1997년)에 학사가 된 후 3년 후인 2000년에 연세대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다시 7년 만에 한양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김사장은 고교졸업 전부터 증권회사에 다녔고, 군 제대 후 외국계 회사로 옮긴 뒤 재무분야 전문가로 승승장구했고, 1994년 30대 중반의 나이로 한국신텍스라는 회사의 대표이사 부사장을 맡았다.

이듬해 BMW코리아 상무로 자리를 옮긴 후 승진을 거듭한 끝에 2000년 BMW그룹 코리아 대표이사가 됐다. 2003년 아시아인으로는 처음으로 BMW그룹의 임원이 됐고 이 과정에서 그의 고졸 학력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

았다고 했다. 동국대 신정아 교수, 만화가 이현세, 인기 영어강사 이지영, 동송아트센터 김옥랑 대표, 인기 연극 배우 윤석화 등 줄줄이 이어지는 허위학력 사례와 대조가 되어 그 신선도가 훨씬 컸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학력 위조사태가 만연해 왔는가 유명대학의 학위만 있으면 실력이 없어도 편안하게 출세를 하는 풍토가 가짜 학위를 부추겼고, 실력을 집중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대신 학력으로 능력을 측정하는 풍토가 문제였다는 지적이다.

특히 감성적 분야인 문화계는 객관적·계량적 평가가 어려워 학력 같은 ‘간판’에 의존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나의 자격요건으로 족할 학력이 개인의 능력을 재단하는 잣대가 되고, 단순한 참고자료로 족할 학벌이 개인의 실력이나 파워로 작용하는 우리나라의 후진적 관행이 더욱 큰 문제로 보인다는 견해도 있다. 학력증시 풍조는 우리의 대학진학률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고교 졸업생의 대학진학률은 82%로 전 세계 최고의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일본은 47%이고 유럽국가는 대부분 50% 전후이다. 대학 천국이라는 미국도 66%에 불과하다. 그러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직원을 모집하는데도 대졸출신이 대거 몰려들었다는 후문이다. 유독 가짜학력자가 많이 노출된 학계나 문화계와는 달리 경영계의 전문경영자들 가운데에서는 가짜학위와 관련된 이름이 오르내리는 경우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기업 경영계에서는 학력보다는 능력 위주로 인재를 선발하거나 발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신한은행에서 국내은행 최초로 은행장을 세 번 연임하고 현재 신한지주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회장직

을 7년째(3연임) 계속하고 있는 라웅찬 회장은 선린상고 출신이고, 사장되기가 가장 어렵다는 롯데그룹에서 사장 자리까지 오른 이종규 롯데햄 대표이사 사장의 최종학력은 미산상고이며, 우리나라 최고 사무기구 제조업체인 퍼시스의 손동창 대표이사 회장 역시 경기공업전문학교가 최종학력이다. (세 분 다 대학특수과정은 제외)

언론보도에 의하면 삼성전자의 경우 임원 700명 가운데 서울대 출신은 56명으로 10%도 안 되며, 연세대와 고려대 출신도 각각 30여명으로 순위로는 6위, 7위에 불과하다고 한다. 1위는 경북대 출신이며, 그 밖의 지방대 출신이 111명이나 된다고 한다. 게다가 임원 가운데는 전문대와 상고출신도 있다는 것이다.

출신 학교를 완전히 배제한 채 5단계 테스트를 거쳐 능력 위주로만 평가하고 승진시킨 결과이다. 신입사원 선발과 육성만을 전담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300명의 이 부서 직원들은 해마다 전국 70여개 대학과 전문대 중에서 인재를 선발해 오고 있다.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학력기준이 아닌 능력과 자질 위주의 인재선발과 인사정책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선진국에는 박사학위 없는 교수가 수도룩하고 특히 예능계 교수의 대부분은 박사학위가 없고, 의학 저널리즘 분야도 학력보다는 실력을 중시한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학력을 위조하는 사례가 줄어들기 위해서는 개인의 재능과 탁월한 역량이 진가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의 개발로 능력과 실적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게 될 때 가능하리라 나는 생각한다.

<끝>

<기행문>

대통령 알현



대종회 이사
沈英輔

나는 직원의 안내를 받아 백악관 건물의 1층 중앙에 있는 블루룸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거기서 얼마간 서성대며 기다리는 동안에 들떠 있던 마음을 가리앉히고 둘레를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다.

타원형으로 된 넓은 이 방에는 높은 천정으로부터 금색찬란한 가지촛불형의 샹들리에가 늘어뜨려져 있었고 곳곳의 적당한 위치에는 의자와 간이탁자, 그리고 벽난로·벽 거울·장식탁자·장식 조각물 등의 여러 가지 고급 가재집물들이 품위 있게 자리잡고 있었다.

그리고 바닥에 깔아 놓은 일광(日光) 무늬의 타원형 융단이나, 높은 창문의 좌우에 잘 정돈되어 걸려 있는 궁단 커튼들, 또는 금빛 의자의 쿠션 부분들이 모두 청색색조(靑色色調)를 띠고 있어서 이 방의 이름<블루·룸>에 어울리게 방 전체가 아늑한 맛을 풍기고 있었다.

또 이 방 남측의 원형 돌출부를 구성한 높은 문과 창문들을 위시해서 의자의 금색 수(繡)무늬며 장식탁자의 조형 그리고 크림색 벽지의 상·하단에 붙인 연쇄도형이나 촛불을 들고 있는 천녀상(天女像)의 조각작품 등이 모두 19세기 초의 프랑스 황제시대<루이 16세와 나폴레옹 시대>의 유형을 본 따서 만든 것이어서 역시 우아하고 위엄이 있었다.

나는 이 대접전실(大接見室)을 두리번거리며 황홀경에 취해있는 동안에 이쪽이나 나라의 대통령을 알현(謁見)하게 되었다. 그것도 단 한사람의 현직 대통령이 아니라, 무려 여섯 명이 나오는 전직 대통령이다.

즉 이 방에는 사방의 벽마다 몇 개씩의 유화가 걸려 있었는데 그 중에는 미국건국초기의 역대 대통령들의 초상화가 6점이나 끼어 있었던 것이다. 초대인 조지·워싱턴 대통령의 원형 초상화를 비롯해서 2대의 존·아담스, 3대의 토머스·제퍼슨, 5대의 제임스·몰로, 7대의 앤드류·잭슨 그리고 10대의 존·타일러 대통령의 것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여러 명의 대통령은 비록 그들의 초상화로서나마 동시에 한 자리에서, 그것도 그들이 늘 짐무하던 백악관 접견실에서 만나본다는 것은 나로서는 대단한 영광이요 행운이 아닐 수 없었다.

세계의 유수한 정객들이나 저명 인사들도 저명 인사들도 특별초대나 약속 없이는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백악관이요 만날 수 없는 이가 그 나라 대통령일진대 어찌 나의 이만한 알현엔들 감격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알고 보면 나의 이 알현은 나만의 특별대접은 물론 아니었다. 백악관은 지정 요일의 지정 시간 중에는 항상 일반에게 공개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무료입장 할 수 있고 특히 시내관광코스 중에도 의례히 끼어 있어서 아무라도 쉽게 그곳을 찾아가서 내부까지 살살이 구경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미국대통령의 문장(紋章)이나 기(旗), 또는 역대 대통령의 초상화나 많은 명화들, 그리고 각종 호화 장식과 공예품, 가구와 집기 등등이 즐비하게 진열되어 있는 백악관의 지층 복도나 북측출입로, 이스트·룸, 그린·룸, 레드·룸, 스테이트·다이닝·룸, 현관홀 등을 두루 관람하면서 미국의 위대한 힘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한 나라의 통수권자이며 제1인자인 대통령의 집무처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그들의 그 평화스러운 분위기와 여유 만만한 자세에 나는 한편 놀라면서 또 한편 감개무량하였으니 그것은 내가 한낱 외국인이었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끝>

청라언덕



심익근

불안개 핀 호수 건너
실구름 헤집는 이슬비
푹푹한 싱그러움으로
산자락을 감싸면.

철쭉의 꽃망울이
불그레한 네 불처럼
미소를 머금는다.

꽃잎 터지는 봄의 뜰에서
소녀는
하얗게 하얗게
목련을 닮아가고.

자운영 꽃 곱게 핀 들판엔
소년들이
봄 내음을 가르는데. ---

봄의 축제
어우러지는
꽃눈 내리는 청라언덕.

그 언덕
오솔길 따라
누나가 꽃가마 타고
시집을 간다.

人事

상무 : 동의대 법정대학장 겸 행정대학원장
 基旭 : 동부증권 고객자산 관리팀장
 경자 : 세종대학 예체능대학장
 화진 : 성신여대 제8대 총장선임
 규섭 : 중소기업중앙회 고용지원팀장
 현동 : 교장승진 부천북교
 재영 : 교감전보 김포교육청
 연아 : 장학사 광명교육청
 수만 : 홍익대 취업상담지원센터
 奎奉 : 신한은행 청운 WINNERS
 영목 : 삼성서울병원 암센터장

理事會費

상철 100,000 2006~7 扶安
 秀一 50,000 2007 전주

誠金에 感謝합니다

宗報贊助

만복 30,000 단양
 윤보 50,000 부산대학교
 원식 30,000 곡성
 재호 50,000 인천
 상균 30,000 옥수동
 희보 30,000 시흥시 정왕동
 창호 30,000
 진용 30,000 봉화

無限企業社

無限建設環境株式會社
 代表 沈承澤
 주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275
 TEL : (041)335-3331, 331-3332
 ·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중
 ·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
 ·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 폐기 구조물 해체 공사업

訃告

沈愚增(前 大宗會財務理事)
 9월 8일 宿患으로 別世

아들 : 基雄 자부 : 元熙卿
 딸 : 基蓮 사위 : 安億朋
 딸 : 基順 사위 : 金興洙

아프가니스탄 선교단원

탈레반 반군에 피랍된 인질중에 피살된
 故 沈揆聖(성민 29)군의 冥福을 빕니다

誤字訂正

5면. 종사소식 安孝公諱溫 端午節祠題號 및
 本文에 節祠는 節祀로 정정합니다.

祝

국제수학올림픽 은메달 획득
 심정수(서울과학고2년)

광복절기념 독립운동 포상자
 건국훈장 애족장
 3.1 운동 沈性禹, 國內항일 沈仁澤

祝

博士學位取得

沈奎澤(大宗會理事, 西서울宗會長)씨의
 次男 相泳군 2007년 4월 江原大學 藥學博士

沈顯輔(豐德公派)씨의
 長男 揆範군 2000년 2월 高麗大學 經濟學博士
 次男 揆夏군 2007년 4월 成均大 東洋哲學博士

2007년 하반기 정년퇴직교원 정부 포상

- ◇ 황조근정훈장
 심기섭(沈琪燮) 교장 신명초등학교
 심화섭(沈花燮) 교장 서울대진초등학교
 심진섭(沈震燮) 교장 냉정초등학교
- ◇ 홍조근정훈장
 심재화(沈在和) 교장 칠원초등학교
 심정자(沈貞子) 교감 서울문정초등학교
 심장손(沈長孫) 교감 서울남사초등학교
 심의만(沈宜滿) 교사 부강공업고등학교
 심운흠(沈允欽) 교사 신하초등학교
 심만택(沈萬澤) 교장 내기초등학교
 심승례(沈勝禮) 교감 해양초등학교
 심홍섭(沈弘燮) 교수 영남대학교
 심창석(沈昌錫) 교감 대구성곡초등학교
 심광자(沈光子) 교감 서울송덕초등학교
 심상덕(沈相德) 교감 마포고등학교
 심형보(沈亨輔) 교감 대전성룡초등학교
 심현국(沈鉉國) 교사 대전고등학교
 심문숙(沈文淑) 교장 망미중학교
 심우섭(沈禹燮) 교감 근화여자고등학교
 심현용(沈賢勇) 교장 광탄중학교
 심원선(沈源善) 교사 광주석산고등학교
 심진섭(沈晉燮) 교장 광주동성고등학교

- ◇ 옥조근정훈장
 심재환(沈載歡) 교장 철성중학교
 심상룡(沈相龍) 교감 장항고등학교
 심인섭(沈仁燮) 교장 원천중학교
- ◇ 근정포장
 심방자(沈芳子) 교수 순천향대학교
- ◇ 대통령표창
 심교화(沈敎華) 교장 강릉문성고등학교
- ◇ 국무총리표창
 심윤주(沈允珠) 부교수 연세대학교

풍어(豐漁)

시조시인 심성보
 (부경대학교수 공학박사)

물건리* 몽돌 포구
 파랑(波浪)이 쉬어가는 날
 방조제(防潮堤) 팽나무는
 갈치배 점등(點燈)하고
 묵로는 그물코에 솔을 걸고
 흑야(黑夜)를 띄웁니다

유장(悠長)한 해안선은
 두루미 발을 뺀고
 아득한 수평(水平)에는
 새벽 별 은은한데
 풍어로 돌아오는 딸기코 선장(선장)
 소주 한 잔 즐깁니다.

*물건리: 남해군에 위치한 포구(포구)마을

三芝石材工業株式會社

副社長 沈相翰
 사무소 : 서울 수유1동 472-474 三芝빌딩 4층
 TEL : 02)981-0027
 공 장 : 포천시 선단동 433-5
 TEL : 031-543-1541~3

송금안내

찬조금 또는 종보 회비를 송금하실 분은
 아래 구좌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은행 033-031098-04-046
 대중회심명구
- 농 협 084-12-055823
 (을지로4가지점) 084-01-179314
 대중회 심명구

본 성금이나 회비는 전액 종보발간에 사용하고 있으며
 별도회계로 독립 재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송심씨대중회
 전화: (02)2267-7857

5처산소 유사 연락처

世	관 직	소재지	유 사	전 화번호
시 조	문림량	청 송	相 國 宜 亮	011-554-1313 016-9225-3618
2세조	합문지후	합 열	瑿 燮	011-676-0892
3세조	청화부원군	안 성	庚 周	011-9801-4815
4세조	청성백	연 천	良 燮	011-728-2104
4세조비	청주송씨	청 주	成 輔	019-480-9994